데스크 시각

박치경

'진보 교육감'에게 보내는 편지

'예견된' 마찰음이었을까요? 지난 12일 광주 외국어고 설립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직권철회 요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 이전부터 철회 방침을 공표한 터라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화되고 보니 앞으로 지역 교육계에 불어닥칠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장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지요. 전임 교육감 임기 문제로 지난 8일에야 취임한 장 교육감이 처음 단행한 주요 보직 인사에서 '측근'들이 전진배치됐다는 평입니다.

지역 교육 대변혁 신호탄

사실 광주·전남교육의 대변혁 신호탄은 3개월여 전인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취임을 전후해 터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전 몇몇 교육현장 간부의 '돈봉투 제공' 공개, 교육장 공모제 등 파격적인 시도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당연지사로 인식되던 관행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며 장만채 교육감이 보여준 시그널은 지역 교육계를 긴장의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으로 진보교육감의 본격적인' 쌍두마차'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두 교육감 다 같이 청렴과 상생, 학생인권 강화, 다수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교육의 수준향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정체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교육으로 자녀의 미래를 밝혀 달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는 학부모들도 기대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칠 새로운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에 따른 충격과 동요가 감지됩니다. 우선 광주시교육청 인사 여파입니다. 교육행정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교원인사과장과 초등인사장학관 인선을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에 인선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혁신'이라는 큰 바퀴가 구르면서 생겨나는 잡음이랄 수도 있지만 개운치는 않습니다. 쫓겨나는 듯한 형국이 된 전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보따리를 쌌을까요? 교육계 특성상 드러내고 불평하기는 어렵겠지만 동병상련을 겪는 사람들이 '안티 장휘국'이라도 구축한다면 교육감 스스로 앞날에 장애물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요?

광주 외국어고 설립 과정에서도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외고 설립 심의위가 가결한 사항을 재심의에 부쳤지만 개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철회 신청을 하는 바람에 반발이 생겨났습니다.

필자는 외고를 설립하려는 측과는 일면식도 없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외고 설립 논의 과정에서 보듯이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원칙과 절차가 묵살된다면 이를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명분과 현실의 조화를

평소에도 상생을 강조하신 만큼 생각이 다른 쪽과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훨씬 큰 개혁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고,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 단추부터 엇갈리는 것 같아 아쉽군요.

지금까지의 소음이 불가피했다면 앞으로는 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두 교육감 모두 지나친 명분에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칫 '자승자박'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바람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품성을 갖도록 하고 공부도 잘 시켜달라는 것이라면 해법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교육감 모두 이제 임기 초반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교육은 멀리 내다보아야 하니까요.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실

광주시, 부실 TF팀 과감히 정리하라

광주시 각 실·과에서 운영 중인 TF팀(Task Force Team)이 무려 76개에 이른다고 한다. 시청 내 실·과가 45개인 점을 감안하면 실·과별로 최소 1.5개 이상의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TF팀은 경직된 공직사회에 교수 및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시각을 접목시켜 업무 추진력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운영과 참여자 중복, 공무원 중심의 인선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산유원지 활성화 TF팀의 경우 2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지만 환경단체와 유원지 업주 간의 마찰로 3개월 이상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탁상행정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권도시 추진 TF팀 역시 임명된 위원 가운데 상당수의 인권 전문가들을 사전 의견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실과가 위원 선임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예견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TF팀이 다루는 현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해당 실·과에서 추진해온 사안으로 TF팀 구성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고질적이고 장기간 끌어온 민원들은 TF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TF팀 운영은 시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의 주요 정책이자 강운태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장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너도나도 TF팀에 매달린다면 예산과 인력 낭비 등 역기능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까지 운영 중인 TF팀을 전면 재점검해 존속 가치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과감히 정리하고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폐습은 공조직 무력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4개월만의 금리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던 한은이 이번에 추가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예상 수준을 뛰어 넘는 물가 불안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10월 소비자물가는 4.1% 치솟아 1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49.4%나 뛰어올라 199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물가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의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게 뻔하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추가로 3조4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도 불구, 경기 양극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최악인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은은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초저금리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밖에 없는 출구전략이라 해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펜칼럼

임명재

김황식 총리는 무상급식 시각 바꿔야

김황식 총리는 지난달 20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에게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며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김총리의 견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김황식 총리에게 묻고 싶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는 왜 자녀들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성인으로 자라나서 좋은 인격체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개인과 민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치 호랑이가 새끼를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아 독립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새끼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나는 그 분야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히 사냥하는 법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을 교육하고, 예절을 배우고, 질서를 익힌다. 식사를 하는 행위를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면, 무상교육의 대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G20회의는 국격을 높이는 위대한 행사였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 때다.

모든 국민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어야 하고, 직업이 전혀 없어도 먹을 것과 잠잘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하고, 내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순환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좀 더 많은, 좀 더 비싼 서비스나 재화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목당 100만 원짜리 과외는 선택이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한끼당 5만 원짜리 점심은 선택이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점심을 거르지 않게 해야한다.

혜택을 주면 더 게을러진다는 생각을 하는 김황식 총리는 가난한 자의 노동시간이 김황식 총리의 업무 시간에 몇 배는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황식 총리는 G20 개최국의 국격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기고

박찬두

겨울산행 즐기려면

세월의 속도는 그 나이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하였던가. 20대에는 너무 느리게, 30대에는 조금은 서두르며 서행하더니 40대가 넘어가면서 그 속도가 놀라보게 빨라졌음을 느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에 익숙해지고 고비 고비마다 뜻밖의 일에 유연히 대처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계절은 내가 느끼는 시간보다 더욱 빠른 듯 하다. 미처 가을산행을 위한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평년보다 15일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다.

가을 산행을 놓친 등산객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연중 등산의 묘미를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겨울철이 그만큼 성큼 다가왔다는 점은 충분한 위로가 될 듯싶다. 등산시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설화가 만발한 겨울 산을 즐기는 묘미는 다른 계절이 따라올 수 없는 즐거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산행은 그 특별한 즐거움의 크기 만큼이나, 산행을 떠나기 전 치밀한 계획과 장비 확보, 날씨 점검 등의 여러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산행에서 치밀한 계획은 필수적이다. 겨울에는 평상시보다 해가 2시간 가량 일찍 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산길에 눈이 쌓이면 평상시보다 산행시간이 2배 정도 늘어지기 쉽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빨리 출발하고 빨리 하산을 시작해야 하며, 일기 예보내용을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통해 확인하되, 날씨의 이상변화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하산해야 한다.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에서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하산을 늦게 시작하였거나 길을 잃어 야산에 고립되었을 경우, 이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겨울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체온을 유지할 보온성이 탁월한 등산복은 필수적이며, 등산화는 보온성과 방수성이 좋은 조금 큰 사이즈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어두울 때를 대비해 손전등을 준비하고 털모자, 양말, 장갑 등은 보온성이 좋은 순모제품으로 여벌을 준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가방에는 비상식량을 챙겨야 한다.

칼로리가 낮고 무게가 덜 나가는 인스턴트식품을 위주로 해서 초콜릿과 건포도, 과일 등의 간식이 좋다. 불가피하게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 후 불을 피워 위치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산행의 으뜸은 단연 겨울산행이라 생각한다. 유비무환을 되새기며 비상시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과유불급을 되새기며 일찍 하산을 시작한다면 다가올 겨울산행은 이전의 어떤 산행보다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지금도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 겨울마저 지나가 버리기 전, 독자 여러분도 설화가 만발하여 손짓하는 겨울 산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빈곤층 특별전형제' 도입으로 교육 양극화 막아야

최근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수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부잣집 자녀들이 좋은 학원을 다니고 빈곤층은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숨이 터져 나오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모의 학력과 소득 정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학력 대물림'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지난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31만원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부모의 소득은 246만 원으로 2배나 됐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 학벌의 서열을 결정하고 있었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여기에 더해 '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다. 앞으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금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른 속도로 균열할 것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빈곤층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교육의 양극화와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걸 막아야 할 것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네페르티티 흉상

"모나리자가 루브르박물관 밖으로 나간다면, 루브르는 관심을 잃게 될 것이다. 네페르티티(Nefertiti)는 베를린에서 여왕이다."

고대 이집트 왕비 중 최고의 미녀인 네페르티티의 흉상을 결코 돌려줄 수 없다며 지난 2007년 이집트 주재 독일 대사 베른트 에르벨이 이집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문제는 흉상이 위험 없이 운반될 수 있느냐이다. 독일과 이집트 양국은 최소한의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돌려주기 어렵다는 얘기다.

네페르티티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인 아멘호테프 4세의 왕비다. 생전에 '절세의 미녀' 소리를 들었던 그녀의 흉상은 3300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예술적인 가치로 인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1912년 이집트 아마르나 유적지에서 그녀의 흉상을 발견한 독일인 루드비히 보르하르트는 '회반죽에 채색한 공주의 흉상'이라고 속여 독일로 반출해갔으며, 지금은 베를린 달렘미술관에 소장돼있다. 이집트는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인 줄 알았다면 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또 일본이 약탈해간 조선왕실의궤 167책 등 1205책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다. 타국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영혼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재들을 마침내 돌려받게 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다.

그런데 강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으면서 왜 다행이라고 여겨야만 하는지, 씁쓸한 심경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약소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간 강대국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듣다 보면 '역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치솟는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